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 모듬입니다. 여러분, ‘태백, 금강, 한라, 백두’는 무엇과 관련된 말일까요? 산 이름이라고 생각되지요? 산 이름이기도 하지만 씨름의 체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오늘, 저희 모듬은 씨름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씨름은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한국의 전통 레슬링(씨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씨름은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이며) 두 사람이 살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살바는 씨름 경기에서 허리와 다리에 둘러 묶어 손잡이로 쓰는 천으로 씨름 경기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하고 특징적인 용구입니다.

아, 질문 있으시네요. (청중의 질문을 듣고) 현재는 살바를 매고 씨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처음에는 살바 없이 하다가 허리에 띠를 매고 하는 허리씨름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두 다리 사이에 띠를 끼우고 하는 살바씨름이 생겨났고, 이때 두 다리 사이를 뜻하는 ‘살’과 길게 늘어뜨린 줄을 뜻하는 ‘바’가 합해져 ‘살바’라는 이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를 이어 가겠습니다.

씨름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씨름의 형태가 오늘날까지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등에서 가치를 높이 평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씨름은 김홍도의 풍속화에서도 (손가락으로 자료를 가리키며) 볼 수 있는 세시 풍속 놀이로서 한민족 특유의 공동체 문화가 바탕이 되어 발전하였습니다. 씨름은 무엇보다 체구가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기술입니다. 몇 가지만 설명하면, 먼저 손기술로는 (㉢ 자료를 제시하며)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을 당기면서 오른손으로 밀어 무릎 안쪽을 치면서 넘어뜨리는 앞무릎치기 등이 있고, 다리기술로는 상대방을 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오른쪽 다리로 상대방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발다리걸기 등이 있습니다. 또 허리기술로는 들배지기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술들이 있고, 이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면서 흥미진진하게 경기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씨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씨름이 좀 더 흥미롭게 느껴지시나요? (목소리를 크게 하며) 마침 내일 체육 시간에 씨름을 배우려고 하는데 열심히 참여하면서 우리 씨름에 대해 직접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② 준언어적 표현을 통해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화제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에 사용된 매체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씨름의 체급 분류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1]을 사용하였다.
- ② 씨름의 경기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3]을 사용하였다.
- ③ 씨름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2]를 사용하였다.
- ④ 씨름의 다양한 기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1]을 사용하였다.
- ⑤ 씨름의 기술이 사용되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3]을 사용하였다.

3. 위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힘과 기술을 이용하는 씨름 경기에서 ‘살바’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나요?
- ② 살바가 씨름 경기에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살바’라는 이름은 어떻게 변화해 왔나요?
- ③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씨름 경기에서 ‘살바’를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④ 살바를 맞잡아 두 사람이 승부를 겨룬다고 했는데 ‘살바’라는 명칭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요?
- ⑤ 상대를 힘과 기술을 이용해 넘어뜨리는 씨름 경기에서 ‘살바’가 특징적인 용구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4~7] (가)는 학교 신문반 회의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기사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학생 1: 지난주에 우리 학교 미래 동아리가 주최한 스마트팜(Smart Farm) 체험 행사를 취재했는데, 오늘은 기사로 쓸 내용을 정리해 보자.

학생 2: 스마트팜 체험 행사에 내가 다녀왔는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무척 좋아하더라. 나도 스마트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돼서 좋았어.

학생 3: 정말? 나도 함께 가고 싶었는데. 어떤 걸 새로 알게 됐니?

학생 2: 나는 스마트팜이 농장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이라고만 생각했거든. 그런데 내가 몰랐던 장점이 많아서 그것을 기사에서 다루었으면 좋겠어.

학생 1: ㉠ 그래, 그러면 농장 운영의 편의성을 높여 준다는 장점 외에 또 어떤 걸 기사에서 다룰까?

학생 2: 친환경적이고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다루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행사 내용도 소개해야겠지?

학생 3: 그래. 이번에 취재하면서 행사를 주최한 미래 동아리 학생도 만났지?

학생 2: 응. 이번 행사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더라. 행사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기사에 넣어 주면 좋겠다고 했어.

학생 1: 그래. 또 어떤 내용을 넣을까?

학생 2: 행사를 소개하는 거니까 행사 목적을 포함한 행사 기본 정보가 들어가야겠지. 그 내용은 내가 정리해 둘게.

학생 3: 고마워.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했잖아. 참여 학생의 반응도 함께 소개하면 어때?

학생 2: 좋은 생각이다. 학생을 인터뷰 한 내용을 활용해 볼게.

학생 1: ㉡ 제목을 농칠 뻔했는데 표제와 부제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자.

학생 2: 표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독자의 호기심을 끌 수 있게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면 되잖아.

학생 3: 의문문을 사용하면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평서문으로 진술하고 행사명이 드러나게 [A] 작성해 보자.

학생 2: 그래. 그럼 부제는 학생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활용해서 써 보는 게 어떨까?

학생 1: ㉢ 좋은 생각이지만, 부제는 누가 어떤 행사를 했는지 드러나야 할 것 같은데 좀 더 얘기해 보자.

학생 2: 그럼 부제는 행사 주체와 역할이 드러나게 작성해 보자.

학생 3: 아! 그리고 본문에는 행사 운영에 대한 결과를 드러내면 좋겠어.

학생 2: 운영 결과라면, 참여 학생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학생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건 어때? [B]

학생 3: 그래? 그런데 학생 만족도는 인터뷰 내용과 유사한 정보니까 다시 언급하면 정보가 중복되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2: 그럼 그 내용은 빼기로 하자. 마지막 문단에는 대구를 사용하여 행사의 의미를 드러내는 건 어때?

학생 3: 좋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동아리 활동 계획도 같이 알려 주면 좋겠어.

학생 2: 그래. 오늘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기사문의 초고를 작성해 볼게.

(나)

스마트팜, 농업에 과학을 입히다  
미래 동아리, 스마트팜 체험 행사 개최

미래 동아리는 지난 9월 2일 우리 학교 옥상 스마트팜 체험장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체험 행사인 ‘농업에 과학을 입히다’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스마트팜을 소개하고, 농업 관련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우리 학교의 스마트팜은 정보 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장으로, 사람이 직접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 또한 LED 조명을 활용하여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경 재배 방식을 통해 토양 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청정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다.

이번 스마트팜 체험 행사는 3부로 이루어졌다. 1부에서는 이론 교육인 청년 농부 ○○○ 선생님의 ‘스마트팜을 알자’, 2부에서는 농장 실습인 ‘상추와 토마토를 스마트하게 길러요’, 3부에서는 농업 관련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청년 농부 ○○○ 선생님과 만나요’라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 동아리는 이번 행사를 위해 한 달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하였으며 행사 당일에는 스마트팜 실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체험에 참여한 △△△ 학생은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꿨는데, 자주 돌보지 못해 키우던 작물이 말라 죽곤 했어요. 이번 행사에서는 싱싱한 토마토를 직접 딸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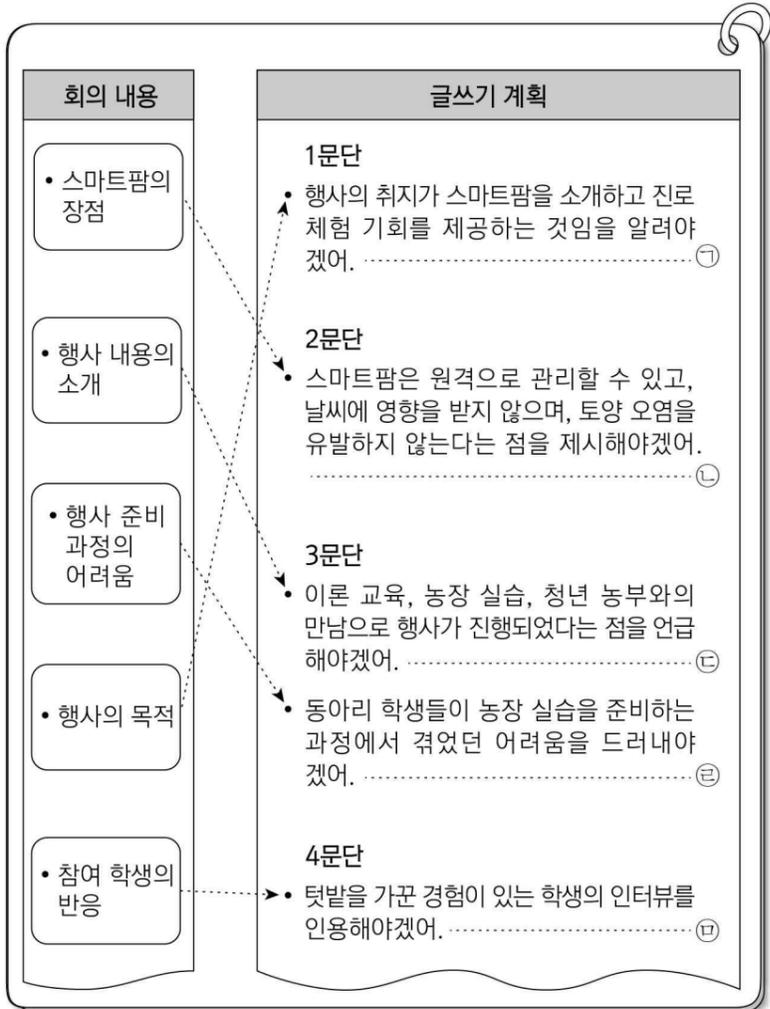
4. (가)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발화이다.
- ② 논의가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한 발화이다.
- ③ 참여자 사이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발화이다.
- ④ 상대가 발언한 내용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발화이다.
- ⑤ 상대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기 위한 발화이다.

5.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을 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이 지닌 문제점을 들어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신이 제시한 의견을 보충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학생 3’은 ‘학생 2’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6. 다음은 (가)의 학생 2가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가)를 바탕으로 (나)의 끝 부분에 새로운 문단을 이어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관리는 편하게, 수확은 즐겁게’라는 스마트팜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 ② 이번 행사는 ‘농업의 발전 가능성과 한계’라는 두 얼굴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래 동아리는 스마트팜을 개방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③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오늘은 팜, 내일은 스마트팜’으로 발전하는 우리의 농업을 알게 되었다. 미래 동아리는 앞으로 진로 체험 행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④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스마트팜을 ‘어렵지 않고 친근한 농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미래 동아리는 수확한 농산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스마트팜’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미래 농업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다.

[8~10] (가)는 작문 상황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글의 목적: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설득하기
- 주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자.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나) 학생의 초고

전동킥보드는 휴대가 쉽고 다른 이동 수단에 비해 이용 방법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요즘 이런 이유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증가했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구입 시 유의점이나 운행할 때의 안전 규정에 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전동킥보드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KC마크를 취득한 안전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품 안전 정보를 안내한 홈페이지에서 모델명을 검색해 KC마크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둘째, 전동킥보드는 현행 법규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관련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전동킥보드 관련 면허 소지자라 하더라도 시속 25km 이하로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셋째,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와 함께 무릎과 팔꿈치 등에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또 야간 주행을 할 때는 전조등을 달고 전후방 반사체를 부착해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만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된 것은?

- ①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였다.
- ② 글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의 제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 ③ 글의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방법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다.
- ④ 글의 주제에 대한 당위성을 드러내기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우리 학교 상황을 제시하였다.
- ⑤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동킥보드의 사고 원인을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9.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통계 자료>

ㄱ-1. 전동킥보드 사고유형별 현황(단위: 건)

연도	전동킥보드 대보행자	전동킥보드 대차	전동킥보드 단독
2018	33	58	26
2019	61	141	23

ㄱ-2. 보호 장비 착용 현황

착용 현황	비율
항상 착용	27%
가끔 착용	44%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음	29%

ㄴ. <화재조사관 인터뷰> “요즘 배터리 충전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해 리튬 배터리 팩이 폭발하여 전동킥보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과충전 보호 장치가 있는 KC마크 취득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또 취침 중에는 충전을 피하고 충전이 끝난 뒤에는 전원을 분리해야 합니다.”

ㄷ. <신문 기사> 전동킥보드는 바퀴의 크기가 작고 몸을 보호해 줄 만한 차체가 없어서 사고 시 중상자 비율이 자동차 사고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공학과 ○○○ 교수는 “시속 25km 이하의 속도 제한과 보호 장비 착용은 사고에 취약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 ① ㄱ-1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지어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고 있는 실태를 1문단에 제시한다.
- ② ㄴ을 활용하여 KC마크 취득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로 충전 중 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2문단에 추가한다.
- ③ ㄷ을 활용하여 규정 속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로 전동킥보드의 구조적 특성상 사고에 취약하다는 내용을 3문단에 추가한다.
- ④ ㄱ-2와 ㄷ을 활용하여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호 장비 착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 자료로 4문단에 제시한다.
- ⑤ ㄴ과 ㄷ을 활용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도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2문단에 추가한다.

10. <보기>는 [A]를 고쳐 쓴 글이다. [A]를 고쳐 쓰기 위해 친구들이 조언한 내용 중 <보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아는 것만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전동킥보드는 ‘나’뿐만 아니라 ‘남’의 안전도 위협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①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용적 표현을 추가하는 게 어때?
- ② 앞 문단과의 흐름을 고려하여 연결 표현을 삭제하는 게 어때?
- ③ 두 번째 문장이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해당 문장을 삭제하는 게 어때?
- ④ 어려운 단어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쉬운 단어로 교체하는 게 어때?
- ⑤ 첫 번째 문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주장을 제시한 이유를 추가하는 게 어때?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두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반대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을 반의어라고 한다. 이 중 ‘넓다/좁다’처럼 정도나 등급에 있어서 대립되는 단어 쌍을 등급 반의어라고 한다. 등급 반의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등급 반의어가 나타내는 정도나 등급은 단계적인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정도부사의 수식이나 비교 표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리 집 마당은 아주 넓다.”, “우리 집 마당이 옆집 마당보다 더 넓다.”라고 쓸 수 있다. 이때 ‘우리 집 마당’의 넓이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둘째, 등급 반의어에서는 한쪽 단어의 긍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하며, 이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마당이 넓다’는 ‘마당이 좁지 않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나 마당이 ‘좁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넓다’는 것은 아니다. 마당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등급 반의어는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당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다.”라는 표현이 가능한데, 이것은 마당의 크기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는 ‘중간 정도’의 크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별도의 말이 존재하기도 한다.

넷째, ㉠ 등급 반의어의 대립 쌍 중 일부는 두 단어 중 하나가 언어적으로 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어 마당의 면적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당의 ‘넓거나 좁은 정도’를 물을 때, “마당이 얼마나 넓니?”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당이 좁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한 “마당이 얼마나 좁니?”라고 묻는 것은 어색하다. 또한 넓은 정도를 나타내는 파생 명사로 ‘좁이’가 아니라 ‘넓이’가 사용된다. 이는 ‘넓다’가 ‘좁다’에 비해 어떠한 전제나 가정이 없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등급 반의 관계에 있는 ‘넓다/좁다’에서 ‘넓다’가 더 활발하게 쓰여 사용상의 비대칭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1. 밑글을 참고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올해는 사과 품질이 좋다.'에서 '좋다'에는 비교 표현을 쓸 수 있겠군.
- ② '여행 가방이 무겁다.'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방의 무게는 다를 수 있겠군.
- ③ '기차역은 여기에서 멀다.'에서 '멀다'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겠군.
- ④ '영수 집은 학교에서 가깝다.'에서 '가깝다'를 부정하면 '멀다'의 의미와 동일하겠군.
- ⑤ '물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에서 '뜨겁지도'와 '차갑지도' 사이의 중간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있겠군.

12. <보기>의 담화 상황을 고려할 때, 밑글의 ㉠에 해당하는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진주: 여행 잘 갔다가 ㉠ 왔어?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니?  
 승민: 이육사의 발자취를 따라 이육사 문학관에 ㉡ 갔어. 볼 것도 많고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인상 깊었어.  
 진주: 나도 가 보고 싶다. 문학관이 ㉢ 커?  
 승민: 우리가 같이 갔던 황순원 문학관보단 ㉣ 작아. 입장할 때 줄도 섰어.  
 진주: 그랬구나. 줄이 ㉤ 길었어?  
 승민: 내 앞에 다섯 명 정도 있었어. 줄은 ㉦ 짧았는데 줄어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사람들이 천천히 관람하느라 그런 것 같아.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음운 변동 중에는 한 음운이 앞이나 뒤의 음운의 영향을 받아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때 조음 방법이나 조음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밤물[밤물]'은 'ㅂ'이 뒤의 음운 'ㅍ'의 영향으로 비음인 'ㅍ'으로 바뀌어 조음 방법이 달라졌지요. 그럼 다음 단어 들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탐구해 봅시다.

달님[달림], 공론[공논], 논리[놀리]

학생: ( ㉠ )은/는 한 음운이 ( ㉡ )의 음운의 영향을 받아 ( ㉢ )으로 바뀌어 ( ㉣ )이/가 바뀐 사례입니다.

- |   |    |   |    |       |
|---|----|---|----|-------|
|   | ㉠  | ㉡ | ㉢  | ㉣     |
| ① | 달님 | 앞 | 유음 | 조음 방법 |
| ② | 달님 | 뒤 | 비음 | 조음 위치 |
| ③ | 공론 | 앞 | 비음 | 조음 위치 |
| ④ | 공론 | 뒤 | 비음 | 조음 방법 |
| ⑤ | 논리 | 뒤 | 유음 | 조음 위치 |

14.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다른 문장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 이 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을 절이라고 하는데 그 종류로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예를 들어 관형절은 안은문장 안에서 절 전체가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다음 자료에서 안긴문장의 종류와 기능을 파악해 보자.

**[자료]**

- ㉠ 누나가 주인임이 밝혀졌다.
- ㉡ 삼촌은 농담을 던짐으로써 분위기를 풀었다.
- ㉢ 형은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 ① ㉠~㉢에서 안긴문장의 종류가 모두 동일하고 ㉠에서 안긴 문장은 안은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군.
- ② ㉠~㉢에서 안긴문장의 종류가 모두 동일하고 ㉡에서 안긴 문장은 안은문장 안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군.
- ③ ㉠~㉢에서 안긴문장의 종류가 모두 동일하고 ㉢에서 안긴 문장은 안은문장 안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군.
- ④ ㉠~㉢에서 안긴문장의 종류가 모두 다르고 ㉠에서 안긴문장은 안은문장 안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군.
- ⑤ ㉠~㉢에서 안긴문장의 종류가 모두 다르고 ㉡에서 안긴문장은 안은문장 안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군.

15.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중세국어에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실현되는 의문형 어미와는 달리, 체언 뒤에 직접 실현되어서 의문의 뜻을 나타내면서 문장을 끝맺는 조사가 있다. 이를 '의문 보조사'라고 하는데, 의문 보조사로는 관정 의문문에 실현되는 '가/야'와 설명 의문문에 실현되는 '고/오'가 있다. 그런데 '가, 고'는 모음 또는 'ㄹ' 다음에는 '아, 오'로 쓰인다.

- 얻는 藥(약)이 ( ㉠ )  
[얻는 약이 무엇인가?]
- 이 쓰리 너희 ( ㉡ )  
[이 딸이 너의 종인가?]
- 옛데 일홈이 ( ㉢ )  
[어찌 이름이 선야인가?]

- |   |      |    |         |
|---|------|----|---------|
|   | ㉠    | ㉡  | ㉢       |
| ① | 므스것고 | 종가 | 船若(선야)오 |
| ② | 므스것고 | 종가 | 船若(선야)고 |
| ③ | 므스것고 | 종고 | 船若(선야)오 |
| ④ | 므스것가 | 종고 | 船若(선야)오 |
| ⑤ | 므스것가 | 종아 | 船若(선야)고 |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계, 기업, 정부는 경제 주체로서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정부는 정책 결정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편익이란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득으로, 기업의 판매 수입과 같은 금전적인 것이나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만족감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을 말한다. 비용이란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다.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명시적 비용은 그 선택을 할 때 화폐로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A]

순편익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지는데, 한계편익은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며 한계비용은 그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볼펜을 1개 더 살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의 한계편익은 볼펜을 1개 더 사는 데에서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며, 한계비용은 볼펜을 1개 더 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기업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 내릴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한계비용은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 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며, 한계수입은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여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다. 완전경쟁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계수입이 된다. 완전경쟁시장은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이므로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이 기업의 한계수입이 된다.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시장 수요가 증가하여 상품 가격이 오른다면, 한계수입도 그만큼 동일하게 오른다.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계비용이 한계수입보다 큰 경우에는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줄일 때 그로 인해 추가로 절약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입보다 크므로 생산량을 줄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려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평균비용이다. 평균비용은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서 총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구분된다. 한계비용이 총비용 중 가변비용에만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평균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고정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생산량이 많은 적든 매달 똑같이 내야 하는 임대료가 그 예이다. 가변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으

로, 각종 재료비, 상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고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이 그 예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는지 평균비용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총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한 기업이 완전경쟁시장에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기업은 평균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 보고 만약 가격이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생산량이 얼마이든 그 가격에 상품을 판매해 보았자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다면 투입된 총비용을 전부 회수하여 손실 발생을 막는 것이 이 기업에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의 평균비용이 시장 가격보다는 낮아야 이윤이 남는데, 어떻게 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 이처럼 평균비용은 한계비용과 더불어 기업이 생산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합리적 선택을 중심으로 생산에 관한 기업의 의사 결정을 살펴보는 것은 경제 활동을 더 잘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업의 생산 활동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해 주고 고용 증가, 경제 성장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6.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의 장점을 제시하며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 ② 합리적인 선택이 지닌 한계를 제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③ 경제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며 각 경제 주체가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하고 있다.
- ④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제시하며 생산량을 결정할 때의 어려움을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17.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총비용에서 고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가변비용이다.
- ② 완전경쟁시장의 개별 소비자는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 ③ 생산량과 상관없이 기업이 매달 똑같이 내야 하는 임대료는 한계비용에 영향을 준다.
- ④ 평균비용은 총비용이 생산된 상품에 똑같이 배분되었을 때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비용이다.
- ⑤ 같은 편익을 주는 대안이 여러 개 있다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8.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평균비용은 고정비용이 얼마인지, 한계비용은 가변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 ② 평균비용은 시장 가격이 왜 오르는지, 한계비용은 시장 가격이 왜 떨어지는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 ③ 평균비용은 생산을 멈추어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한계비용은 생산에 드는 암묵적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 ④ 평균비용은 생산을 중단할 만한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 한계비용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도달해야 할 생산량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 ⑤ 평균비용은 생산량 증가로 총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계비용은 상품 가격 하락으로 판매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19. 윗글의 [A]를 참고할 때, [독서 후 심화 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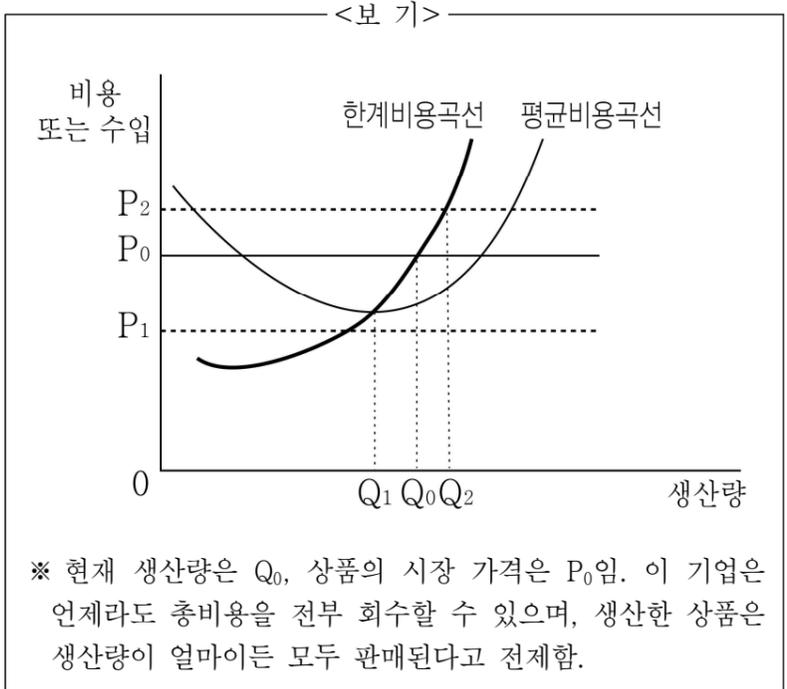
**[독서 후 심화 활동] 글의 내용을 아래 상황에 적용해 보자.**

3,000원을 가지고 가게에 간 갑은 각각 1,000원인 ○○ 과자와 △△ 음료수를 모두 사고 싶지만, 먼저 ○○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 선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과자 소비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아래 표와 같다. 비용에는 갑이 과자 소비로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해 반영했으며, 편익은 과자 소비의 만족감을 고려해 각 소비량만큼 과자를 사기 위해 갑이 지불할 마음이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나타냈다. 갑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은 모두 무시한다.

○○ 과자 소비량(개)	비용(원)	편익(원)
0	0	0
1	2,500	4,000
2	5,500	7,500
3	9,000	9,500

- ① 갑이 과자 소비에서 얻는 순편익은 과자를 3개 살 때보다 1개 살 때 더 크겠군.
- ② 갑이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과자를 샀다면 음료수 1개 값이 남겠군.
- ③ 갑이 과자 소비량을 0개에서 1개씩 늘릴 때마다 얻는 한계 편익은 점점 줄어들겠군.
- ④ 갑이 과자 소비량을 2개에서 3개로 늘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추가로 얻는 만족감보다 크겠군.
- ⑤ 갑이 과자를 사기 위해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는 과자를 구입하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작아지겠군.

20. <보기>는 완전경쟁시장에 있는 어느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관련된 비용과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생산량을 Q<sub>0</sub>로 유지하면, 평균비용이 한계수입보다 작으므로 이윤이 극대화되겠군.
- ② 생산량을 Q<sub>2</sub>로 늘리면, 한계비용이 한계수입보다 커지므로 이윤이 남지 않겠군.
- ③ 가격이 P<sub>0</sub>로 유지되면, 생산량을 Q<sub>1</sub>으로 줄여도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이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이윤에는 변함이 없겠군.
- ④ 시장 수요의 감소로 가격이 P<sub>1</sub>이 되면, 생산량을 Q<sub>1</sub>으로 줄여야 평균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므로 손실을 0으로 만들 수 있겠군.
- ⑤ 시장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P<sub>2</sub>가 되면,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커지므로 생산량을 Q<sub>2</sub>에 가깝게 늘릴수록 이윤이 증가하겠군.

2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동생이 기차에서 내리면서 나를 보았다.
- ② 심사위원은 그에 대해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 ③ 그때는 이미 전국에 폭풍 주의보를 내린 뒤였다.
- ④ 선반 위에서 상자를 내리려면 사다리가 필요하다.
- ⑤ 그는 게시판의 글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내 유년 시절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면 어머니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뉘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무를 깎아주시곤 하였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 소리, 어머니조차 무서워요. 애야, 그것은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네가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자정 지나 앞마당에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지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잇장 같은 내 배를 자꾸만 쓸어내렸다. 처마 밑 시래기 한줌 부스러짐으로 천천히 등을 돌리던 바람의 한숨. 사위어가는 호롱불 주위로 방안 가득 폴폴 수십 장 입김이 날리던 밤,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 기형도, 「바람의 집—겨울 판화 1」 -

(나)

가을 뜨락에  
씨앗을 받으려니  
두 손이 송구하다

모진 비바람에 부대끼며  
머언 세월을 살아오신  
반백(斑白)의 어머니, 가을 초목이여

나는  
바쁘게 바쁘게  
거리를 헤매고도

아무  
얻은 것 없이  
꺼멧게 때만 묻어 돌아왔는데

저리  
알차고 여문 황금빛 생명을  
당신은 마련하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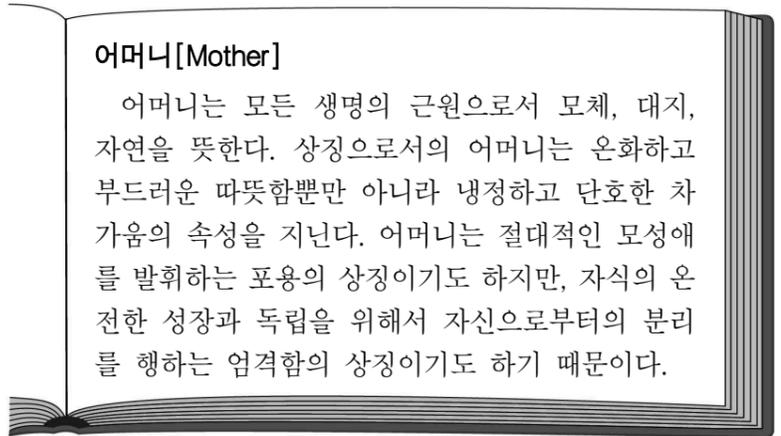
가을 뜨락에  
젊음이 역사한 씨앗을 받으려니  
도무지  
두 손이 염치없다.

- 허영자, 「씨앗을 받으며」 -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화자의 심리적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특정 대상과의 대화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색채어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3. 다음은 '상징어 사전'의 일부이다. 다음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자신으로부터의 분리를 행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나)에서는 자신으로부터의 분리를 행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② (가)에서는 온화한 태도에서 단호한 태도로 바뀌어 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나)에서는 단호한 태도에서 온화한 태도로 바뀌어 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③ (가)에서는 성숙을 돕기 위한 존재로서 냉정하게 미래를 전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나)에서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너그럽게 포용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④ (가)와 (나)에서는 모두 세계에 대항하지 못하는 나약함을 질책하는 엄격한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외부의 시련을 차단해 내며 절대적인 모성애를 발휘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4.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람'의 움직임은 '울음 소리'를 일으키며 어린 시절 화자가 느꼈던 불안의 정서를 유발하는군.
- ② '종잇장'은 '시래기 한줌 부스러짐'과 연결되어 화자가 겪었던 팍팍한 삶의 이미지를 형성하는군.
- ③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에서는 판화처럼 각인된 '유년 시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나는군.
- ④ '수십 장 입김이 날리던 밤'은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인 '동지'와 결합되며 안온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군.
- ⑤ '방안'의 '사위어가는 호롱불'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동시에 어린 시절 화자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군.

25. (나)에 대한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씨앗을 받으며」는 작품의 처음과 끝이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첫 연과 마지막 연의 내용에서 반복 또는 변주된 부분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반복	추가	반복	추가	변형
1연	가을 뜨락에	-	씨앗을 받으려니	-	두 손이 송구하다
6연	가을 뜨락에	젊음이 역사한	씨앗을 받으려니	도무지	두 손이 염치없다

- ① ‘가을 뜨락에’를 반복하여 화자가 자신의 삶을 탐색하는 계기가 된 계절적 상황을 강조하는군.
- ② ‘젊음이 역사한’을 추가하여 화자가 과거에 기울였던 노력의 가치를 스스로 재인식하는 모습을 부각하는군.
- ③ ‘씨앗을 받으려니’를 반복하여 화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을 촉발한 소재에 주목하게 하는군.
- ④ ‘도무지’를 추가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에서 보이는 정서적 반응이 심화되었음을 나타내는군.
- ⑤ ‘송구하다’를 ‘염치없다’로 변형하여 화자가 시적 대상을 통해 갖게 된 성찰적 태도를 강화하는군.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나 그런 게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정직하게 벌 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대기업에 붙여, 공일날 카메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 주지를 않았다. 취직 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니, 보러 가기도 보러 가라기도 점점 서로 미안하게 되었다. 이 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훈이가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체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 왔다.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 살겠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다.”

“왜요 고모, 쪼쪼하게 돈이 아까워서? ㉠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 봐 겁나서?”

훈이는 두 개의 간략한 질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했다. 마치 이 두 가지 이유 외에 딱 이유란 있을 수도 없다는 말투였다. 나는 뱀에 얻어맞은 듯이 아연했다.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살아 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게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담.

제가 잘되고 잘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은 상처의 치유를 확인 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 그 녀석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선이 강하게 부딪쳤으나 나는 단절감을 느꼈다. 문득 이 녀석 치다꺼리에 구역질 같은 걸 느꼈으나 가까스로 평정을 가장했다.

“해외 취업은 당분간 보류하렴.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건 네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취직 문제네,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 뚫으려고 했던 것 같아. 방법을 좀 바꾸어서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홍, 돈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녀석이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며 대들었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곁에서 내가 늘그막에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훌쩍였다.

**[중략 줄거리]** 고속도로 건설 현장 일꾼으로 채용된 훈이에게 ‘나’는 카메라 대신 작업복과 워커를 사 준다. 어느 날 ‘나’는 훈이를 찾아가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훈이를 보자 서울로 돌아가자고 설득한다.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 주고 싶어.”

“그걸 우리에게 보여서 어찌겠다는 거야? 그걸로 우리에게 ㉣ 복수라도 하겠다 이 말이냐?”

나는 훈이 말에 무서움증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흥분해서 악을 쓰며 덤벼들었다.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말아. 나는 다만 고모가 꾸미고, 고모가 애써 된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놓여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고모, 오해는 마.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 나는 내 나름으로 이곳에서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노라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지. 나도 어느 만큼은 그 쪽도 원하고 있어. 파국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냐.”

“그래 참, 잘될 수도 있을 거야. 잘될 여지는 아직도 충분히 있고말고.”

나는 별안간 잘될 가능성에 강한 집착을 느끼며 태도를 표변했다.

“㉤ 그렇지만 고모, 잘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진 마. 뒷돈 쓰고 빌붙고 하느라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야. 여기 와 보니 육 개월만 기다리라는 임시직 신세로 삼사 년을 현장으로만 굴러다니는 친구가 수두룩해. 임시직 에겐 봉급 조금 주고, 일요일도 없이 부려 먹고, 책임은 없고, 얼마나 좋아, ㉥ 회사 측으로선 훌륭한 경영합리화지.”

훈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배웅했다. 진부까지 나가는 완행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뭔가 훈이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나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나를 과장해서 들려주면서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서 강릉까지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안해지겠느냐, 너는 이런 국토건설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걸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 녀석이 구역질 같은 소리로 “웃기네” 했다. 때마침 바캉스 시즌이라 자가용이 연이어 강릉으로, 월정사로 달리면서 우리에게 휴먼지를 뒤집어씌웠다. 훈이도 한몫 참여한 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자가용과 관광버스가 그 위에서 쾌속을 즐기겠지. 훈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웃기네” 했을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한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나는 그것을 혼자서 탔다. 나는 훈이에게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손짓 했으나 훈이는 시골 버스가 떠나기까지의 그 지루한 동안을 워커에 뿌리라도 내린 듯이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나는 그게 보기 싫어 먼 판 데를 바라보았다. 논의 벼는 비단 폭처럼 선연하게 푸르고, 옥수수 밭은 비로드처럼 부드럽게 푸르고, 먼 오대산의 연봉의 기상은 웅장하고, 오대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도처에서 내와 개울을 이루고 있다. 아름다운 고장이다. 이 땅 어디메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으랴.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뿌리내리기 힘든 고장인가.

훈이가 젓먹이일 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화해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져지는 걸 본 나이기에, 지레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 가며 키웠다. 그런데 그게 빛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리이러하게 키우려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연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

2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재의 상징적인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 간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의 내면과 대조되는 배경 묘사를 통해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인물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부양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고모에 대한 훈이의 불만을 드러낸다.
- ② ㉯: 해외 취업을 반대하는 고모에 대한 훈이의 반감을 드러낸다.
- ③ ㉺: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훈이의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 ④ ㉻: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회사에 대한 훈이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 ⑤ ㉼: 국토건설사업에 이바지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에 대한 훈이의 비웃음을 드러낸다.

28.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위이고, ㉯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위이다.
- ② ㉮에는 특정 인물의 오해가, ㉯에는 특정 인물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 ③ ㉮는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에서, ㉯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 ④ ㉮에는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에는 특정 인물을 기만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었다.
- ⑤ ㉮는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는 특정 인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연극적 자아는 속물적인 논리로 자신과 자기 주변만을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감춘 채, 세상과의 타협을 지향하는 이중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연극적 자아의 부정적 특성을 심화시킨다. 이로 인해 연극적 자아는 그 주변의 인물마저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간다.

- ①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은 연극적 자아의 내부에 존재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유발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찾으려는 모습은 연극적 자아의 속물성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애써 된 이 일의 파국’을 통해 연극적 자아 주변에 있는 인물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④ ‘그게 보기 싫어 먼 판 데를 바라보’는 것은 연극적 자아의 이중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군.
- ⑤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에 대한 소망은 세상과의 타협을 지향하는 연극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명 가정 연간에 청주 땅에 사는 한 사람이 있으니, 성은 이요, 이름은 형도라. 일찍 등과하여 벼슬이 이부시랑에 이르니 이름이 전국에 진동하며, 일남일녀를 두었으니 여아의 이름은 현경이요, 남아의 이름은 연경이라. 현경이 비록 여자나 뜻은 남자에 지나니, 삼 세부터 글 읽기를 힘쓰니 재주와 학식이 날로 성취하여 나이 팔구 세에 읽어 보지 못한 글이 없고 통하지 않는 글이 없어 문장이 일세에 겨룰 이가 없으니, 이공 부부가 비록 그 재주를 사랑하나 너무 활달함을 염려하여 경계 왈,

“네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도를 닦을 것이어늘, 남자의 일을 행함은 어찌된 일인가.”

현경이 공경 대왈,

“사람이 세상에 나매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고 아버이를 효도로 섬겨 공명을 일세에 누리고 이름을 백세에 전하옵이 뗏뗏하온지라, 소녀가 비록 여자의 몸이오나 뜻은 세상의 용렬한 남자를 비웃나니, 원컨대 여복을 벗고 남복으로 갈아입고 부모를 모셔 아들의 도를 행코자 하나이다.”

이공이 처음에는 망령되다 꾸짖다가 다시 생각하되, ‘제 아직 철이 없고 사리에 어두워 이 같은 뜻을 두니, 아직 저 하고자 하는 바를 좇을 것이요, 이후에 장성하면 제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있어 여자의 도를 행하리라.’

하고 금하지 아니하매, 소저가 이날부터 남복으로 갈아입고 사랑을 모셨으니,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이형도의 자식이라 하여 그 얼굴과 풍채를 사랑하고, 여자가 화하여 남자가 됨을 알지 못하더라.

현경이 팔 세에 이르러는 사랑의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나니, 소저가 노복을 거느려 선산에 안장하니, 그 예절을 차리는 것은 어른도 미치지 못하고 애도함이 과도하니, 사랑의 친구들이 조문할새, 어린 상제의 저렇듯 어른스러움을 보고 모두 눈물을 흘리며 왈,

“이형도는 비록 세상을 버렸으나 팔 세 아들을 두어 상을 치르는 예절이 장성한 열 아들보다 지나니, 사랑이 죽지 않았다.”

하고 칭찬함을 마지 아니하더라.

[중략 줄거리] 이현경은 선우의 난을 정벌하며 높은 벼슬에 오르나, 병이 든 후 태의의 진맥으로 어쩔 수 없이 여자임을 밝히게 된다.

장연이 일봉 서찰을 써 청주후의 집에 보내니, 수문자가 차사로 전하여 드린대, 이현경이 받아 보고자 하되 오히려 즐겨 뜯어보지 아니하거늘, 연경 공자가 물으니,

“형장이 어찌 즐겨하지 아니하십니까?”

이후가 답하지 않고 마지못하여 뜯어 보니 하였으되,

‘소제 장연은 예의를 갖춰 청주후께 글월을 올리나니 슬프다. 옛날 죽마고우로 지내며 관포지기를 맺어 한 부중에 있으며 권권한 뜻으로 백 년이라도 떠나지 아니할까 하였더니, 형이 임금께 올린 진정표를 들으니, 소제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지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니, 현후의 유화한 기상과 장강대해 같은 능력은 일컫기 어렵거니와 갑옷을 입고 장검을 춤추며 활을 당기고 말을 달림은 예나 지금이나 뛰어난지라. 여차한 재주로 남자가 되지 못하여 십 년 공업이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었도

[A]

다. 소제의 벼슬 다시 누구에게 의탁하리오. 한 번 밥을 먹으며 열 번을 헤아리건대, 이 도무지 천명이라 인력으로 미치리오. 다만 어리석은 소회 있으니, 현후가 도요\*를 읊지 아니하고 소제가 숙녀를 정하지 아니 하였으니, 전일 지기를 아껴 버리지 아니하시거든 기러기 전함을 우러러 바라나니 즐겨 허락하시리이까. 장연은 혼례를 갖추고자 하나이다. 모년 모월 모일에 호부상서 기주후 장연은 올리노라.’

하였더라.

이후가 보기를 다하매 눈썹을 찡그리고 탄식 왈,

“장생은 아름다운 사람이어늘, 어찌 구차함이 이러하고. 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로다.”

연경 공자가 왈,

“형이 이제는 근본이 탄로되었으니 가히 홀로 늙지 못할지라. 장후를 버리고 어떤 사람을 얻으려 하십니까? 답장을 잘하여 보내시면 좋을까 하나이다.”

이후가 웃으며 왈,

“내 몸이 비록 여자나 황상이 총애하시고 벼슬과 봉록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규중에 잔물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몸으로 백세를 지내며 보름마다 천자에게 조회하여 천자를 뵈옵고, 때때로 음풍영월하여 종신토록 즐기다가 사후에 묘에 새기기를, ‘대명 청주후 태학사 이현경지묘’라 하니니, 어찌 장연의 아내 되기를 원하리오.”

하고 붓을 들어 답장을 쓴 후, 장연의 하인에게 내어 주라 하니, 하인이 돌아와 답서를 올린대, 장후가 답장을 뜯어보니 가라사대,

‘촌인 이씨는 공경하여 글월을 장공께 올리나니, 천만 의외의 손수 쓴 편지를 보니 한편 두려웁고 또한 황감하여 답장하기 어려우나, 옛날 동조하던 일을 생각하여 염치를 불고하고 회포를 배푸나니, 청컨대 비루한 뜻을 더럽다 아니하실까 하나이다. 당초에 뜻이 망령되어 죄를 사후에 얻고 천하에 비웃음이 되온지라. 이제 깨달으니 낫을 들어 상공을 대하기 부끄럽나이다. 높으신 천자를 보오매 땅을 파고 들고자 하되 어찌 못함을 한하옵나니,

[B] 옛날 사림이 후하다 하나 불과 조정의 일개 서생으로 만나 면목이 있을 뿐이요, 어렸을 때부터 간혹 글월을 화답할 따름이라. 어찌 관포의 지기가 있으리오. 이제 옛날 근본을 들은 후, 일 서간으로 비로소 할 따름이니, 어찌 옛날 사림으로 인하여 욕설을 구차히 하십니까. 제 종신토록 조정 벼슬로 후직을 지켜 욕됨이 없게 할지라. 남의 집 며느리 되기를 원치 아니하니, 적은 소견으로 어찌 나를 비웃으리오. 모월 모일에 청주후 태학사 이현경은 올리노라.’

장연이 끝까지 읽어보고 크게 놀라며 왈,

“이 혼사가 쉬우리라 하였더니, 어찌 여차할 줄 뜻하였으리오.” 하더라.

장연의 장형 장협과 차형 장흡과 모든 벗들이 일시에 놀라 가로되,

“여자로서 저리할 줄을 누가 능히 알았으리오.”

- 작자 미상, 「이학사전」 -

\* 도요: 혼인을 올리기 좋은 시절.

3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경은 여자임이 밝혀진 후에도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다.
- ② 연경은 편지 내용을 숨기려는 현경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 ③ 연경은 장연이 현경의 혼인 상대로 적합하다고 여기고 있다.
- ④ 장연은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는 답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⑤ 이부시랑의 벗들은 성숙한 자세로 장례를 치르는 현경의 모습에 높이 평가하였다.

3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상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B]에는 상대가 처할 상황에 대한 타인의 추측이 언급되어 있다.
- ② [A]에서는 상대가 얻을 이익을 들어 상대를 종용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가 얻을 손해를 들어 상대를 만류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B]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내세워 상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며 자신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의 처지에 좌절하여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 ⑤ [A]에는 상대와의 인연을 부각하여 자신의 제안을 성사시키려는 의도가, [B]에는 상대와의 생각 차이를 드러내어 상대의 제안을 거절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학사전」은 자발적으로 남자의 삶을 선택하고 사회적 성취를 통해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여성영웅소설이다. 주인공은 주변으로부터 당대의 보편적 성 역할에 따를 것을 권유받으나 이를 거절하며 기존의 여성상에 대한 통념에 따를 것을 거부한다. 또한 여성임이 드러난 후에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등 여성에게 불평등했던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이공이 주인공에게 ‘여자의 도를 닦을 것’을 말하는 것에서, 당대의 보편적 성 역할에 따를 것을 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주인공이 ‘공명을 일세에 누리’는 것을 소망해 ‘남복으로 갈아입고’자 하는 것에서, 자아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남자의 삶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군.
- ③ 주인공을 ‘이형도의 자식이라 하여 그 얼굴과 풍채를 사랑’한 것에서, 여성에게 불평등했던 당대 현실을 알 수 있군.
- ④ 주인공이 ‘사후에 묘’에 ‘대명 청주후 태학사’를 ‘새기기’를 원하는 것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망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장연의 벗들이 ‘여자로서 저러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 말하는 것에서, 당대의 여성상에 대한 통념이 드러나 있군.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바이러스는 체내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생명체와 달리,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 세포에 기생하고, 그 안에서 증식함으로써 살아간다. 바이러스는 바깥을 둘러싸는 피막의 유무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다.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피막의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박혀 있고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있다. 캡시드 안에는 핵산이 있는데, 핵산은 DNA와 RNA 중 하나로만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에 어떻게 감염하는 것일까?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 여부는 숙주 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바이러스는 감염이 가능한 숙주 세포와 접촉한 후 바이러스 피막의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 세포 수용체에 달라붙는다. 달라붙은 부위를 통해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 내부로 침투하고, 바이러스의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되어 숙주 세포 내부로 빠져나온다. 이후 핵산은 효소를 이용하여 복제된다. 핵산이 DNA일 경우 숙주 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고, 반면 RNA일 경우 숙주 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 자신에 맞는 효소를 합성한다. 또한 핵산은 mRNA라는 전달 물질을 통해 단백질을 합성한다.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는 캡시드가 되어 복제된 핵산을 둘러싸고 다른 일부는 숙주 세포막에 부착되어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한다. 그 후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 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되면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 밖으로 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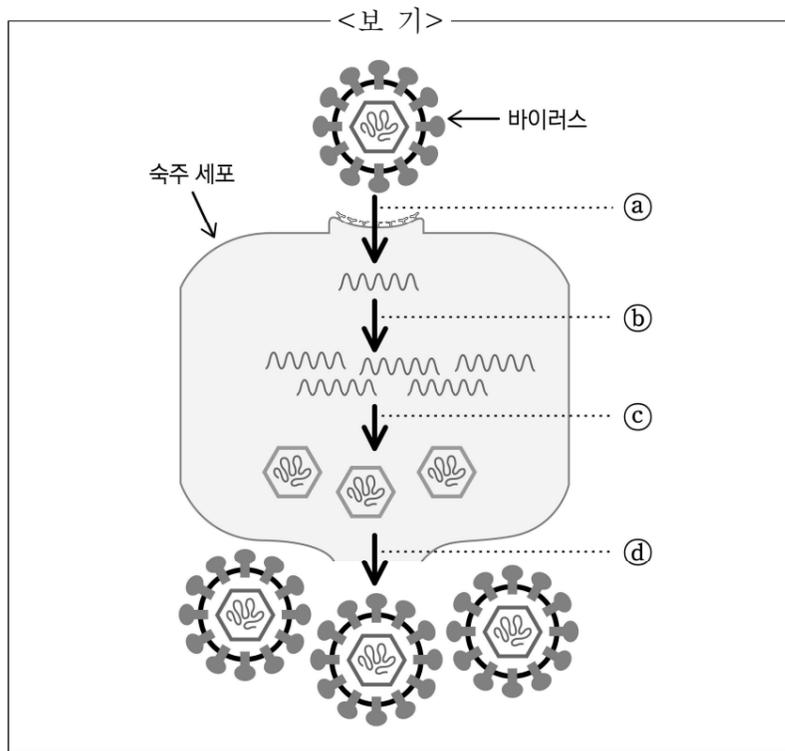
우리 몸은 주로 위의 과정을 통해 지속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위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 급성감염이 일어나기도 한다. ㉠ **급성감염**은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는데, 바이러스는 감염된 숙주 세포를 증식 과정에서 죽이고 바이러스가 또 다른 숙주 세포에서 증식하며 질병을 일으킨다. 시간이 흐르면서 체내의 방어 체계에 의해 바이러스를 제거해 나가면 체내에는 더 이상 바이러스가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반면 ㉡ **지속감염**은 급성감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체내에 잔류한다. 지속감염에서는 바이러스가 장기간 숙주 세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체내의 방어 체계를 회피하며 생존한다. 지속감염은 바이러스의 발현 양상에 따라 잠복감염과 만성감염, 지연감염으로 나뉜다.

잠복감염은 초기 감염으로 증상이 나타난 후 한동안 증상이 사라졌다가 특정 조건에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증상을 다시 동반한다. 이때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에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병이 다르게 발현되기도 한다. 잠복감염은 질병이 재발하기까지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띠지 않고 잠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의 바이러스를 프로바이러스라고 부른다. 만성감염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숙주로부터 계속 배출되어 항상 검출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감염 상태이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질병이 발현되거나 되지 않기도 하며 때로는 뒤늦게 발현될 수도 있다는 특성이 있다. 지연감염은 초기 감염 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장기간에 걸쳐 감염성 바이러스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반드시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

33.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막의 효소와 결합하여 숙주 세포 내부로 침투한다.
- ②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핵산이 DNA라면 캡시드 안에 RNA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③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기생하는 이유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④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가장 바깥에는 부착 단백질이 있다.
- ⑤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캡시드를 피막이 감싸고 있다.

34. <보기>는 특정 바이러스 감염 과정의 일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바이러스의 핵산이 숙주 세포 내부로 빠져 나오려면, 바이러스 피막의 부착 단백질을 이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② b에서 숙주 세포의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바이러스의 핵산은 RNA이다.
- ③ b에서 캡시드가 분리되며 빠져나온 효소는 c에서 다시 캡시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④ c에서 바이러스의 핵산을 둘러싸거나 d에서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되는 물질은 mRNA를 통해 합성된다.
- ⑤ d에서는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피막이 숙주 세포의 구성 요소를 통해 만들어진다.

3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체내에서 감염성 바이러스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 ② ㉠은 ㉡에 비해 바이러스가 체내의 방어 체계를 오랫동안 회피한다.
- ③ ㉡은 ㉠과 달리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숙주 세포를 소멸시킨다.
- ④ ㉡은 ㉠에 비해 감염한 바이러스가 체내에 장기간 남아 있게 된다.
- ⑤ ㉠과 ㉡은 체내의 바이러스가 질병을 발현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36.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ZV)’에 감염되면, 처음에는 미열과 발진성 수포가 생기는 수두가 발병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료되나 ‘VZV’를 평생 갖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다가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되면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생겨날 수 있는데, 이를 대상포진이라 한다.
- ‘C형 간염 바이러스(HCV)’에 감염된 환자의 약 80%는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하고도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감염 환자의 약 20%는 간염증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 ① 수두를 앓다가 나은 사람은 대상포진이 발병하지 않았을 때 ‘VZV’ 프로바이러스를 갖고 있겠군.
- ② ‘VZV’를 가진 사람의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은 ‘VZV’가 다시 활성화되는 특정 조건이 되겠군.
- ③ ‘HCV’에 감염된 사람은 간염증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겠군.
- ④ ‘HCV’에 감염된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간염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군.
- ⑤ ‘VZV’나 ‘HCV’에 의한 질병이 발현된 상황이라면, 모두 체내에 잔류한 바이러스가 주변 세포를 감염시키고 있겠군.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구나 한번쯤은 경치 좋은 곳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꿈꿔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상에는 '일', 즉 '노동'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생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 왔고, 이러한 점에서 노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노동에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

로크는 노동을 ㉠ 소유의 권리와 관련하여 설명했다. 로크는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동시에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는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지 않은 유일한 것이 신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이렇게 신체가 한 개인의 소유라면 그 신체의 활동인 노동 역시 그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공유상태인 어떤 사물에 노동을 부여하는 것은 공유물에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로크는 모든 노동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로크에게 노동은 단순히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편의에 최대의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로크는 만약 어떤 개인이 신체를 사용하여 공유물을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든 경우, 그것은 ㉡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헤겔은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이며, 인간이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바꾸어 필요한 물품과 적절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며 생명을 보전한다고 보았다. ㉢ 이때 자립성을 지닌 객체는 주체의 노동에 저항하기 마련인데, 객체의 자립성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일정하게 제거되고 약화되어 주체에 알맞게 변화된다. 한편 주체는 노동 과정에서 ㉣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 실현한다. 그 결과 객체는 주체의 노동으로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무관한 것에서 인간을 위한 노동 산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객체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이게 된다. 헤겔은 이처럼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을 자기 대상화라 하였다. 결국 주체와 객체는 서로 분리·고립되어 있다가 노동을 통해 노동 산물 속에서 통일되어 가며, 주체는 그 속에 실현된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자기의식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헤겔은 노동 산물이 주체의 ㉤ 소유지만, 여전히 주체와 분리되어 있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기에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마르크스는 ㉥ 헤겔의 노동관을 수용하면서도 노동 자체가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의 욕구와 자기실현에 알맞은 인간화된 자연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결국 그에게 노동은 객체에 인간적 형식을 부여

하기 위해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고, 주체의 욕구나 목적 등은 물질화되어 구체적 노동 산물이 된다. 그 결과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 낸 노동 산물에서 ㉦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주객 통일의 방법이자 인간의 자아실현 과정이라 주장한 것이다. 다만 그는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사회적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며,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아실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37.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로크는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한 신의 의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② 헤겔은 인간이 동물과 달리 자연을 자신에게 맞게 바꾸는 목적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③ 헤겔은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어 얻게 되는 결과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④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⑤ 마르크스는 노동이 주객 통일을 완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회적 구조의 한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38.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인간을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 ② ㉠과 ㉣은 모두 인간의 노동을 성립 기반으로 하고 있다.
- ③ ㉠은 이타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은 이기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은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강화하는 반면, ㉣은 인간과 자연의 분리를 강화한다.
- ⑤ ㉠은 공유물의 존재에 의해 보장되는 반면, ㉣은 주객 통일의 완성에 의해 보장된다.

39. 윗글의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캐릭터 아티스트를 꿈꾸는 A씨는 관련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예술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B사에 입사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몇몇 캐릭터만 반복적으로 그려야 하는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캐릭터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C사로 직장을 옮겼다. 이후 그는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를 마음껏 변용해 그리는 동시에 여러 동물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창작하게 되었다.

- ①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객체 속에 실현하려고 노력해 왔겠군.
- ②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형식을 부여한 노동 산물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겠군.
- ③ A씨가 제한된 캐릭터를 그리는 노동에 염증을 느꼈던 이유는 자기의식 확보에 대한 갈증 때문이겠군.
- ④ A씨가 직장을 옮긴 것은 노동을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유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겠군.
- ⑤ A씨가 예술 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은 외부 대상인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킨 시기였겠군.

40. 윗글과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제레미 리프킨은 첨단 과학 기술이 생산 수단에 접목되는 상황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을 예언했다. 그는 노동의 종말이 긍정적으로는 여가적 삶의 증대를, 부정적으로는 대량 실업으로 인한 정체성의 시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대량 실업의 피해자들을 위해 사회적 경제 부분의 일자리 공유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삶의 이유를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① 윗글과 <보기> 모두 노동이 인간의 정신보다 신체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군.
- ② 윗글과 <보기> 모두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노동이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군.
- ③ 윗글의 노동의 한계는 <보기>의 노동의 종말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겠군.
- ④ 윗글의 노동의 기능은 <보기>의 노동의 기능과 대립하고 있군.
- ⑤ 윗글은 <보기>와 달리 사회 변화가 노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군.

41. 문맥상 ㉠ ~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공유물에 첨가한 노동이 아니므로
- ② ㉡: 자연을 인간에게 알맞게 바꿀 때
- ③ ㉢: 객체가 지닌 자립성을 일부 수용하면서
- ④ ㉣: 노동을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 확보의 계기로 인정하지만
- ⑤ ㉤: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객관화하는 능력을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상의 버린 몸이 시골에서 늙어 가니  
 ㉠ 바깥 일 내 모르고 하는 일 무엇인고  
 이 중의 우국성심(憂國誠心)은 풍년을 원하노라 <제1곡>

농인이 와 이르되 봄 왔네 밭에 가세  
 앞집의 쟁기 잡고 뒷집의 따비 내네  
 두어라 내 집부터 하라 남하니 더욱 좋다 <제2곡>

여름날 더운 적의 단 땅이 불이로다  
 밭고랑 매자 하니 땀 흘러 땅에 떨어지네  
 어사와 입립신고(粒粒辛苦)\* 어느 분이 아실까 <제3곡>

가을에 곡식 보니 좋기도 좋을시고  
 내 힘으로 이룬 것이 먹어도 맛이로다  
 ㉡ 이 밖에 천사만중(千駟萬鍾)\*을 부러 무엇하리오  
 <제4곡>

밤에는 새끼를 꼬고 저녁엔 띠풀을 베어  
 초가집 잡아매고 농기(農器) 줌 손 보아라  
 내년엔 봄 온다 하거든 결의 종사\* 하리라  
 <제5곡>

- 이휘일, 「저곡전가팔곡」 -

\* 입립신고: 낱알 하나하나에 어린 수고로움.  
 \* 천사만중: 많은 말이 끄는 수레, 높은 봉록.  
 \* 결의 종사: 그 참에 바빠 일함.

(나)

불어오는 봄바람이 봄별을 부쳐내니  
 지저귀는 새소리는 노래하는 소리이니  
 굵디고운 수풀 꽃은 웃음을 머금었다  
 이곳에 앉아보고 저곳에 앉아보니  
 ㉢ 꿀 안의 맑은 향기 지팡이에 묻었구나  
 봄빛 반짝 흩어 날고 초목이 무성하니  
 푸른빛은 그늘 되어 나무 아래 어리었고  
 하늘의 빛난 구름 골짜기에 잠겼으니  
 송정에서 긴 잠은 더위도 모르더라

면 하늘은 맑디맑고 기러기는 울어 예니  
 양쪽 언덕 단풍 숲은 비단처럼 비치거늘  
 ㉔ 일대의 강 그림자 푸른 유리 되었구나  
 국화를 잔에 띄워 무지개를 맞아 오니  
 이 작은 즐거움은 세상모를 일이로다  
 하늘 높이 부는 바람 고요하고 쓸쓸하여  
 나뭇잎 다 진 후에 산계곡이 삭막하고  
 선달그믐 조화 부려 백설을 나리오니  
 수많은 산봉우리가 경요굴이 되었거늘  
 눈썹이 솟구치고 눈동자를 높이 뜨니  
 끝없는 설경은 시의 제재가 되었으니  
 세상 물정을 모르니 추위를 어이 알까  
 (중략)

깨끗하고 맑은 바람 실컷 쏘인 후에  
 대여섯 아이들과 노래하며 돌아오니  
 옛사람 기상에 미칠까 못 미칠까  
 옛일을 떠올리니 어제인 듯하다마는  
 깨끗한 풍채를 꿈에서나 얻어 볼까  
 옛사람 못 보거든 지금 사람 어이 알고  
 이 몸이 늦게 나니 애통함도 쓸 데 없다  
 산새와 산꽃을 내 벗으로 삼아두고  
 경치를 만끽하며 생긴 대로 노는 몸이  
 공명을 생각하며 빈천을 설워할까  
 단사표음이 내 분이니 세월도 한가하네  
 이 계곡 경치를 싫도록 거느리고  
 백 년 세월을 노닐다가 마치리라  
 ㉕ 아이야 사립문 닫아라 세상 알까 하노라

- 정훈, 「용추유영가」 -

4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초월적 공간을 동경하며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
- ③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43.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곡>은 '세상의 버린 몸'으로 '풍년'을 바라는 마음을 통해 정치 현실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 ② <제2곡>은 '봄'이 오니 '밭'에 나가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적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③ <제3곡>은 더운 여름에 '땀'을 흘려가며 '밭고랑'을 매는 모습을 통해 농사일의 고단함을 보여 준다.
- ④ <제4곡>은 '내 힘'으로 수확한 '곡식'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보여 준다.
- ⑤ <제5곡>은 '농기'를 수리하며 '봄'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따르는 농촌의 생활을 보여 준다.

44.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㉑: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과거의 삶을 자책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㉒: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③ ㉓: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성현의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④ 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역동적인 자연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⑤ ㉕: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세상과 단절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정치·경제적으로 몰락한 향반계층에게 자연은 안빈낙도의 공간, 곧 자신의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안식처였다. 이처럼 자연은 정신적 풍요로움을 주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현실 소외에 대한 보상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이 작은 즐거움'은 '세상모를 일'이라며 자부하는 모습에는 화자에게 자연이 현실 소외에 대한 보상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음이 나타나는데, 옳다.
- ② '끝없는 설경'에서 느끼는 흥취를 '시'를 통해 표출해 내고자 하는 모습에는 자연을 정신적 풍요로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는데, 옳다.
- ③ 자연을 '벗으로 삼'고 '생긴 대로 노는 몸'에는 정치·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자연을 안식처로 여기며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옳다.
- ④ '공명을 생각'하지 않고 '빈천을 설워'하지 않겠다는 모습에는 자연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데, 옳다.
- ⑤ '단사표음'을 '내 분'으로 생각하니 '세월도 한가하'다고 느끼는 모습에는 삶의 단조로움을 느끼고 안빈낙도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데, 옳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